



**2007년 정기총회 성료
 회장단 연임, 이사 6명 신임선출**

ESCO협회 2007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회원 총 52개사 중 42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도 결산 승인과 2007년도 사업계획(안), 2007년도 예산(안),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적극적인 회원사 유치로 14개의 정회원과 1개의 특별회원을 신규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을 승인받아 협회를 통해 ESCO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제도적인 성과도 거뒀다.

유제인 협회장은 "지난해 ESCO시장과 협회의 많은 변화 중 협회의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을 승인받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른 등록사들이 협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사업을 함께 영위해 나갈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자금을 비롯한 정책 지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ESCO 현실을 꼬집으며 민간자금을 통한 지구책을 확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투자실적 인정군수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ESCO투자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계획이다. 또, 향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같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대대적인 임원인사를 승인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된 김석철 감사의 후임으로 김동욱 성림산업개발(주) 대표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고, 유규상 벽산건설 차장, 심규정 (주)화인 부사장 등 현 이사에 구연호 GS네오텍 상무, 김석철 한국하니웰(주) 팀장, 유광환 (주)케너텍 이사, 최영수 영평기계설비(주) 사장, 송무룡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장, 손진식 (주)케이티자산개발센터 부장을 이사로 각각 선임해 8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또, ESCO사업 확대와 협회 역량 증대에 따라 협회 사무국장을 정관변경(안)을 통해 상근임원인 전무이사로 격상시키고 기존 사무국의 부서 또한 확장기로 했다.

ESCO협회 '에너지진단 분과위원회' 구성

협회는 의무화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관리진단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협회 산하에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진단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006년 12월 14일 '에너지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1월 17일, 이사회 진단기관협의회 추진, 안전을 의결했다. 그 후 1월 24일 산업자원부 'ESCO사업 전문가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에너지진단과 ESCO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 1월 25일 'ESCO협회 에너지진단협의회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 중 '진단협의회 구성 운영' 의결하고, 3월 8일 한미설비(주) 서주원 상무를 위원장으로 '에너지진단분과위원회'로 개칭,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는 에너지진단 분과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진단에서 ESCO사업까지 TOTAL 서비스를 위한 분과위원회 소속기관 공동 홍보 및 발전 모색과 에너지진단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에너지진단 관련 대정부건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 오는 4월 5일에는 '제3차 에너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날 회의에는 진단분과위원회 소속 진단기관 13개(ESCO협회 회원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 8주년 기념 등반대회

협회는 창립 8주년 기념일을 맞아 오는 4월 28일 관악산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ESCO들의 친목도모와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총회 개최 후 등반대회를 실시해 왔으며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체투자실적 5월 말까지 2분기 신청 접수

올 1분기 한라건설(주), (주)해성엘앤엠, 영평기계설비(주) 등 3개사가 10억7300만원을 신청하여 총 3개사 6건 5억3500만원이 인정을 받았다. ESCO 담당 주무관,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장 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됐으며 실적은 4월 1일부터 실적확인서에 반영됐다.

또한 협회는 5월 말까지 올 2분기 자체투자실적 인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06년 1월 1일 이후 성과배분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해 07년 3월에서 07년 5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된 사업이다. 자체투자실적 인정은 매년 2월말(1분기), 5월말(2분기), 8월말(3분기), 11월말(4분기)을 마감일로 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가입을 축하합니다.

• 정회원사

포철기연(주), 대주이엔티(주), (주)에스체테

• 특별회원사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협회 대표메일 변경

기존 kaesco@kornet.net에서

kaesco@esco.co.kr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